

서세동점기 한시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의 형상

박동욱**

<차례>

1. 서론
2. 자료 개괄 및 그 의미
3. 내용분석
 - 3.1 충무공 회고와 추상
 - 3.2 영웅의 부재와 암울한 민족현실
 - 3.3 반 외세의 대망적 영웅 제시
4. 결론

1. 서론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처럼 매력적인 인물이 있을까? 수많은 불세출의 영웅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주

는 이름으로 이순신만한 인물도 드물다. 그는 탁월한 지략에다 고뇌하는 인간미까지 갖추었다. 싸울 때는 연전연승하였으며, 죽을 때도 비범하게 스러졌다. 그는 살아서도 전설이었고, 죽어서는 신화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순신이 박제된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직접 방대한 분량의 『난중일기』를 남긴 바 있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그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가 이순신을 신화적 존재만이 아닌 더욱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게 해준다.

西勢東漸期는 제국주의가 광기를 뽐던 시기였다.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타국의 어떠한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朝鮮의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고 스스로 어떠한 자구책도 강구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國權이 喪失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심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야말로 妖氣처럼 뒤덮은 외세를 물리쳐 줄 救國의 영웅이 필요한 시기였다. 거북선(龜船)을 신출귀몰 몰아대며 왜놈을 섬멸했던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다시 등장해 외세의 더러운 기운을 일시에 몰아내 주리라라는 절박한 기다림이 있었다.

1908년 申采浩가 『대한매일신보』에 「李舜臣傳」을 연재한 것을 필두로 1923년에는 朴殷植이 李舜臣傳 을 上梓했다. 그 뒤 일제에게 국권이 찬탈되고 李光洙는 『李舜臣』을, 崔南善은 『임진란』을 각각 썼다. 애국계몽기와 국권상실기에 이순신이 작품화 됐다는 것은 비단 선각적인 문인들의 시대 인식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민중들의 강렬한 영웅대망론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¹⁾

이 시기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소설뿐 아니라 시에서도 동일하게 보인

* 이 논문은 한국고시기문학회와 (사)온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학술대회(2008. 6.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중 게재 논문이 아님.

** 한양대학교

1) 소설 쪽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장경남,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이 논문에는 기존의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다. 물론 이 때가 아니더라도 이순신에 관한 시는 심심치 않게 여러 문인의 문집에 등장한다. 그러나 특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순신 또는 이순신과 관련된 漢詩의 창작이 줄을 잇는다. 그들은 이순신을 어떻게 그려 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서세동점기 지식인의 사상과 대응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개괄 및 그 의미

이순신을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에 대한 정리는 최영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산문류 21종, 운문류 8종을 제시한 바 있다.²⁾ 그러나 그가 언급한 운문류 8종에 한시는 두 편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순신을 대상으로 한 漢詩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리된 논의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순신 사후에 그를 대상으로 지어진 한시를 모두 정리하면 편수가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서세동점기로 시기를 한정하여 정리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강 위(姜 璋, 1820~1884) 「統制營」·「龜船」
 김윤식(金允植, 1835~1922) 「謁忠武李公畫像」·「過左水營」
 김택영(金澤榮, 1850~1927) 「曹公亭歌 爲費範九作」·「嗚呼賦」
 이견창(李建昌, 1852~1898) 「牙山過忠武公墓」
 황 현(黃 玹, 1855~1910) 「登梅營南門」·「李忠武公龜船歌」·「碧波津 卽李忠武鑿兵處」
 이남규(李南珪, 1855~1907) 「過李忠武公墓」

- 김복한(金福漢, 1860~1924) 「李忠武墓」
 윤종균(尹鍾均, 1861~1941) 「次南坡智島雜絕」·「梅營書感」·「題忠武公影堂」
 곽종석(郭鍾錫, 1864~1919) 「謁忠愍祠」
 왕수환(王粹煥, 1865~1926) 「新城謁忠武祠」·「露梁懷感」
 황 원(黃 瑗, 1870~1944) 「露梁謁李忠武祠」·「李忠武公寶劍歌」
 조궁섭(曹兢燮, 1873~1933) 「統營洗兵館」·「欲往閑山島阻雨未能」
 김창숙(金昌淑, 1879~1962) 「統營轅門〔統營罷爲 鎮南郡又置兵站所〕」·「洗兵館」·「忠烈祠〔祠享 李忠武 舜臣〕」·「江漢樓次板上韻」·「挽河亭」·「受降樓次板上韻」·「重遊統營海 登洗兵館」·「謁忠烈祠」·「過受降樓古址」·「望閑山島二絕」·「鑿梁橋」·「十月十日夜夢與金君振宇, 相携至海上一處竹林中, 謁李忠武祠, 酌酒痛哭, 咏一絕詩, 覺而記之。」

* 양현운(梁顯胤) 「忠武祠」

허 경(許 涇, 1888~1968) 「忠武祠」

김기수(金基洙) 「忠武祠」

양운교(梁運敎) 「忠武祠」

양현표(梁顯表) 「忠武祠」

윤정호(尹政浩) 「忠武祠」³⁾

* 『忠愍詩壇 入選詩文 及選外芳名錄』, 여수, 鍾南詩社, 1934

위에 언급된 인물들은 대부분 매천 황현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 황현의 선배 문인들부터 시작되어 매천시파라 할 수 있는 후배 문인까지 다

2) 최영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 『이순신 연구』 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98쪽 참조.

3) 시기를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서세동점기의 한시로 판단되는 시들이다. 진인호, 허근역해, 『순천 옛시』, 순천문화원, 2004.

양하다. 황현은 강위, 이견창, 김택영, 이기, 이정직, 윤종균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며, 활발한 교류를 보여 준다. 그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대를 지속하는 또 하나의 경향으로 懷人詩가 있었다. 姜瑋가 「龍湖懷人詩」, 「龍湖續懷人詩」, 黃玟이 「歲暮懷人諸作」, 尹鍾均이 「歲暮懷人」, 李建昌이 「懷人作」, 金澤榮이 「分韻得寒字賦懷人體」, 金允植이 「十哀詩」를 각각 지었다. 이러한 회인시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연대감을 재확인한다. 그들이 外勢에 대한 공통된 義奮을 공유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한말의 우국지사였다. 참담한 조선의 현실에 맞서 온몸을 바쳐 투쟁했다. 그들이 이순신을 노래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은 湖南과 매우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정읍현감,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지내면서 호남에서 혁혁한 공을 드날렸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호남 사람들에게 이순신은 더 각별했을 것이다. 또, 호남이란 지역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호남은 고려 항몽전쟁, 임진, 정유왜란, 일제 강점기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殉國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호남 시인들의 文集에서 이순신 관련 한시가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위의 목록에서 보이듯 그들은 충무공과 관련된 장소를 주로 읊었다. 충무공과 관련된 한시 중에 그의 무덤과 사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또, 특히 전라좌수영과 관련된 곳들이 많다 鎭南館, 忠愍祠, 望海樓, 影堂, 五忠祠, 將軍島, 洗兵館, 江漢樓 등이 그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시인들은 그러한 장소를 探訪하고 그에 감회를 남겼다. 때로는 悲感하고 때로는 激烈한 어조로 이순신을 노래했다.

3. 내용 분석

3.1 충무공 회고와 추상

충무공의 묘나 사당과 같은 장소는 시기를 막론하고 충무공 관련 한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題材의 형식을 띤다. 시인은 충무공과 가장 직접적인 지점과 마주 하면서 그에 대한 회고와 추상에 젖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外勢의 기운이 창궐하던 서세동점기에선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이순신을 떠올리면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해 줄 충무공 같은 영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영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셈이다.

| | |
|---------|------------------------|
| 元帥精忠四海知 | 원수의 공은 총절 사해가 모두 아니 |
| 我來重讀墓前碑 | 내 와서 다시금 묘 앞 비석 읽어보네. |
| 西風一夕松濤冷 | 저녁 내 서풍 불어 솔바람 싸늘하여 |
| 猶似閑山破賊時 | 한산섬서 왜적 깰 때 그 소리 비슷해라. |

이견창, 「牙山過忠武公墓」

| | |
|-------|-----------------------|
| 龍蛇那忍憶 | 용사(龍蛇)적 일 어이 차마 기억하리오 |
| 猿鶴至今悲 | 죽은 녀들 지금껏 구슬프도다. |
| 美謚標諸葛 | 고운 이름 제갈량인양 우뚝하고 |
| 中興賴子儀 | 중흥은 곽자의에 힘입었다네. |
| 風松猶謖謖 | 솔바람 여전히 불어대는데 |
| 秋草自離離 | 가을 풀 이리저리 흔들리누나. |
| 此世誰公輩 | 지금 세상 공의 무리 그 누구인가 |
| 重宸聽鼓鼙 | 대궐에선 북치는 소리 들리네. |

이남규, 「過李忠武公墓」

지은 시이다. 충무공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다 이는 인물이지만, 國運이 위태로울 때 충무공의 무덤을 찾는 감회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지식인의 무력감이 이순신에게 강렬하게 투사된다. 저물녘 무덤에 부는 세찬 바람은 그 자체가 비감하여 애상에 젖기 쉽다. 그러나 작가는 이 바람 소리를 특별하게 재해석해서 왜적을 깨부술 때의 공간으로 환치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순신의 무덤은 사멸의 공간에서 부활의 공간으로 일변한다. 영웅의 부활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깔려 있다.

두 번째 시는 이남규의 작품이다. 이남규 자신이 아산 출신이었으니 충무공에 대한 정서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의 제자인 단재 신채호가 충무공의 전기인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을 지은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구의 ‘산짐승도 지금까지 슬퍼한다[猿鶴至今悲]’라는 표현에서 충무공에 대한 깊은 애도를 토로했고, 제갈량과 광자의 같은 걸출한 인물에 빗대어 충무공의 인물됨을 평가하였다. 솔바람[風松]은 충무공에 대한 追念을, 가을 풀[秋草]은 작가의 감회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중신(重震)은 나라를, 또 북소리[鼓聲]는 위태로운 징조를 각각 의미하니 풍전등화의 國勢를 뜻한다. 이러한 형국에서 이순신 같은 영웅에 대한 그리움과 추상은 어떠한 시기보다 강렬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 |
|---------|-----------------------------|
| 梅營春酒洗荒碑 | 매영에서 봄 술로 거친 빗돌 씻으니 |
| 元帥堂堂百世祠 | 당당하신 원수의 백세의 사당일세. |
| 八賜恩綸從北極 | 황제께서 내리신 여덟 가지 하사품 있는 곳에 |
| 再回旋節鎮南維 | 재차 부절을 돌려서 남쪽 땅 안무했네. |
| 昔時兵氣寒潮怒 | 그 옛날 군대 기개 찬 조수도 분노하고 |
| 此日秋聲古木悲 | 오늘의 가을 소리 고목조차 슬프도다. |
| 楚老相逢頭似雪 | 초로(楚老)들 상봉하니 터럭은 눈 내린듯 |
| 九原難作淚雙垂 | 구원(九原)에서 깨기 어려우니 두 줄기 눈물지네. |

「忠愍祠」⁴⁾

忠愍祠는 국가 사적 제381호로 지정된 사당으로 충무공 사액 사당 제1호였다. 선조 34년(1601) 영의정 이항복의 계청을 받아 왕명으로 통제사 이시언이 건립한 충무공의 사당으로 국내 최초의 것이다. 1919년 일제의 탄압으로 다시 철폐되었다가 이후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1933년에 다시 단장하고 이를 기념하여 ‘忠愍祠’라는 제목으로 전국 백일장을 개최⁵⁾했는데 이시는 3,000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3등으로 입상한 작품이다. “단아하고 깨끗하면서도 정한이 담겨져 있어 [雅潔而更有情恨]”이라는 평을 받았다.

수련은 사당에 대한 참배하는 모습을 간략히 적었다. 함련에서 八賜는 명나라의 水軍都督 陣璘이 이순신의 戰功을 황제에게 보고하자 명나라 황제 神宗이 이순신에게 내린 8종류의 유물 15점을 말한다. 황제에게 하사품을 받은 유서 깊은 곳에 백의종군 했던 이순신이 復權되어 돌아와서 남쪽 땅을 안무했던 사실을 말한다. 경련은 옛날과 지금을 대비하여 충무공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미련에서는 시인 자신이 늙은 나이에 사당을 참배하고는 참담한 민족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음을 읊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글픈 감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사당을 참배하고 충무공을 추상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암울한 민족의 현실에 대한 감회를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王粹煥 같은 시인은 「新城謁忠武祠」에서 “지금껏 충무공 유상이 엄숙히 있는데, 소슬하고 신령한 바람이 마을에 불어대니 사악한 마귀들 감히 구슬피 울지 못하고, 백세토록 오히려 응당 매운 영혼 두려워 하리.”⁶⁾라고 하여, 충무공을 단순히 회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수호신의 역할을 바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4) 『忠愍詩壇 入選詩文 及選外芳名錄』, 여수, 鍾南詩社, 1934

5) 김정환, 『매천시과 연구』, 경인문화사, 2007.

6) 至今遺像儼然存 瑟颯靈風灑一村 魔邪不敢啾啾哭 百世猶應怕烈魂

東方有國士 동방에 국사(國士)가 계시었으니
 姓李名舜臣 이씨 성에 이름은 순신이라네.
 在昔龍蛇歲 그 옛날 임진왜란 일어난 해에
 秉鉞獨奮神 부월 잡고 호올로 기개 떨쳤지.
 威聲震日域 위엄 명성 일본 땅에 진동 하였고
 經畧蘇海濱 빼난 책략 바닷가를 소생시켰지.
 風流思叔子 풍류는 양호(羊祜)를 생각해 하고
 孝友邁君陳 효도 우애 군진(君陳, 周平公) 보다 뛰어나.
 桓桓鄭將軍 군세어라 우리의 정장군계신
 許國遂捐身 나라 위해 마침내 목숨 바쳤네.
 太史傳許張 사관이 허원(許遠) 장순(張巡) 전을 쓸 적에
 當載雷萬春 마땅히 너만춘(雷萬春)도 실어야만 했네.
 俎豆敬不惰 공경하여 제사 지냄 부지런 하여
 四時祭南民 철마다 남쪽 백성 제사 지낸다.
 九原難可作 황천에서 일어나긴 어려웁나니
 誰是干城人 그 누가 나라 지킬 사람이리오.

原註: 망해대 옆에 녹도만호 정운⁷⁾의 초상이 또한 배향되어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장군이 수전을 잘하고 충건으로 용맹하게 싸우기에 이순신이 매우 의지했다고 한다. [在望海臺傍, 鹿島萬戶鄭堯之像, 亦配焉. 土人言鄭將軍善水戰, 忠健勇鬪, 李公深仗之云.]

김윤식, 「謁忠武李公畫像」

충무공의 畫像을 모신 사당은 望海臺 옆에 위치했다. 여기에 鄭運의 화상

7) 정운(鄭運, 1543~1592):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河東. 자는 昌辰, 시호는 忠壯. 靈巖 출생. 무과에 급제하여 居山道察訪·熊川縣監을 지냈다. 濟州伊官 때 牧使와의 불화로 파직되었다가 1591년(선조 24) 鹿島만호가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수군절도사 李舜臣의 선봉장이 되어 옥포해전·당포해전·한산도대첩 등의 여러 해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부산포해전에서 추격 도중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영암의 忠節祠, 興陽의 雙忠祠에 제향되었다.

도 배향되어 있다. 이 시는 모두 16구로 이순신과 그의 선봉장이었던 정운(鄭運, 1543~1592)을 추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8구는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간략히 그의 이력을 소개하였다. 5-6구에서 일본땅(日域), (호남) 바닷가(海濱)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압축적으로 이순신의 治績을 부각시켰다. 탁월한 전술로 왜놈들을 물리쳤던 일과 지방을 잘 다스려서 호남 바닷가를 되살린 일들이 잘 그려졌다. 7-8구에서는 그를 중국 사람인 羊祜, 周平公의 風流·孝友에 각각 비교하였다. 羊祜는 중국 西晉 때의 무장이었다. 『晉書』, 「羊祜傳」에 항상 가벼운 옷차림으로 詩酒風流를 즐기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나온다. 周平公은 周公의 아들이다. 군진은 『書經』의 편명이면서 주평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論語』, 「爲政」註에 “書言 君陳, 能孝於親, 友於兄弟, 又能推廣此心, 以爲一家之政.”이라 나온다. 이 두 사람에게 이순신을 빗대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9-12구는 鄭運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나오는 鄭堯은 鄭運의 오자로 보인다. 정운은 이순신이 가장 아꼈던 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죽자 비통한 심정을 『난중일기』에 남기기도 하였다. 11-12구의 張巡과 許遠은 이순신을, 雷萬春은 정운을 각각 가리킨다. 張巡과 許遠은 모두 唐나라 玄宗 때의 충신으로, 757년에 安祿山의 난을 진압하다가 함께 전사한 인물이다. 雷萬春은 張巡의 偏將이다. 舍狐潮와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장순 등과 함께 살해당했다.

13-16구는 아직도 그들을 추모하는 강렬한 민중의 모습 속에서 충무공과 정운 같은 영웅이 다시 再臨해 주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았다. 이 시는 특이하게도 충무공과 그의 수하인 정운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였다. 이순신과 같은 결출한 영웅뿐 아니라, 그를 보좌할 수 있는 수많은 영웅의 탄생에 대한 기대에 다름 아니다.

龍華山外海黏天 용화산 밖 바다가 하늘과 맞닿으니
 眼界遙窮萬里前 안계도 아득해라 만 리의 앞이로다.
 怨角愁旂悽楚裡 슬픔 속에 원망 근심 피리 소리 서러있고
 來航去飄莽蒼邊 아스라한 저 너머로 오고가는 뚝단배들.
 殘城白日生妖靄 무너진 성 대낮에도 요망한 기운 돌아나고
 孤島黝雲和暮烟 외론 섬의 검은 구름 저녁 안개 섞였구나.
 回首洗兵歌舞地 고개 돌려 가무하던 세명관 바라보니
 空留寒月上虛筵 찬 달만 그저 남아 빈 자리에 오르네.
 김창숙, 「洗兵館」

이순신과 관련된 장소에서 읊은 시도 적지 않다. 그러한 장소에서 이순신을 떠올리고, 동시에 암울한 민족 현실을 재확인 하곤 한다. 이 시의 배경이 된 洗兵館은 慶尙南道 忠武市 文化洞에 있는 朝鮮 中期의 建物이다. 1604년 통제사 李慶濬이 李舜臣 將軍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이 시에서는 직접으로 이순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쓰인 詩語는 怨, 愁, 悽, 殘, 妖, 孤, 黝, 暮, 空, 虛 등 하나같이 우울하고 어둡다. 이순신에 대한 찬양 보다는 그가 없는 암울한 민족 현실에 집중해 상실감을 토로한다. 윤중근도 「次南坡智島雜絕」에서 “임진왜란 때 곳곳마다 풍파 겪었는데 元帥의 강개한 노래에 의지함 있었네. 큰 나무 잎이 지고 산의 해 저무는데 곁의 돌 어루만지니 슬픔이 어떠한가.”⁸⁾라고 하여 이순신의 부재를 슬퍼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무공 회고와 추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시들은 이순신과 관련된 공간에서 이순신을 떠올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아울러 상기한다. 이순신을 생각하는 동시에 암담한 조선의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부각된다. 이 시들은 지금과 과거를 대비시키면서 지금의 상황을 그려내는

데 매우 애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영웅을 통해 조선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표현된다.

3.2 영웅의 부재와 암울한 민족 현실

임진왜란 때 국토를 유린한 왜적들에 의해 지상군은 궤멸을 당하였다. 반면 해상에서의 전투는 이순신이란 영웅의 출현으로 단번에 戰勢가 바뀌었다. 신출귀몰한 이순신의 활약이 없었다면 나라의 安危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세월도 지나고 상황도 바뀌었지만 제국주의의 침투로 朝鮮은 임진왜란 못지않게 유린당했다. 淸日 전쟁 이후로 일본은 더욱 조선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고 일본의 독주 속에서 결국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며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敵은 일본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일본에게 잠식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되돌리기에 조선의 힘이 너무 미약했다. 어찌면 이러한 시기에 聖雄 이순신을 그리워하고 그의 不在를 슬퍼함은 당연한 일이다.

匹馬行臨大海頭 필마로 한 바다의 들머리로 임하니
 飄然獨上鎮南樓 표연히 나홀로 진남루에 올랐네.
 將軍渡口寒潮雨 장군 나루 어귀에는 찬 조수에 비가 오고
 忠武祠邊古木秋 충무사 곁에는 고목에 가을이라.
 [城外有李忠武公祠] [성 밖에 이충무공 사당이 있었다.]
 魚市喧譁通暮郭 어시장은 떠들썩 저녁 성곽 이어지고
 龜船寂寞繫虛邱 거북선은 적막하게 빈 언덕에 매어있네.
 [忠武公舊用龜船 今置陸不用矣][충무공이 옛날에 거북선을 썼는데 지금에 육지에 두고는 쓰지 않는다.]
 連天水闊風波靜 하늘 끝 물 드넓고 풍파는 고요하니
 終使浮生伴白鷗 뜬인생이 마침내 백구로 벗을 삼네.
 김윤식, 「過左水營」

8) 龍年無處不風波 賴有元戎慷慨歌 大樹飄零山日暮 摩挲偏石帳如何. 이 시의 주에는 “고하도에 충무공비가 있다.[古下島忠武公碑]”라고 적혀있다.

구한말 김윤식의 작품이다. 그 당시까지 거북선의 실물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거북선은 좌수영의 빈 언덕에 쓸쓸히 녹슨 채 매어 있었던 것이다. 공연히 부산 앞바다에 가서 찾고 말고 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좌수영 주변의 鎭南樓, 將軍島, 충무공 사당 등 유명한 장소들이 등장한다. 진남루에 올라서 바라보이는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 寒潮, 古木, 雨, 秋와 같은 시어들이 쓸쓸한 정조를 더해준다. 빈 언덕에 매어있는 거북선은 영웅을 잃은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시를 한 편 더 살펴보자.

| | |
|---------|--------------------------|
| 丁酉年間事最危 | 정유년 연간에 일이 가장 위태하니 |
| 碧波亭外盡倭旗 | 벽파정 너머는 온통 왜놈 깃발이라. |
| 史憐樂毅罹讒日 | 역사는 악의9)가 참소 입을 슬퍼하고 |
| 天眷汾陽起廢時 | 하늘은 분양10)이 복권될 때 돌아보네. |
| 萬死何曾戰功計 | 만 번 죽어 어이해 전공(戰功)을 꾀했으랴 |
| 此心要使武臣知 | 이 마음 요컨대 무신에게 알게 하리. |
| 至今夷舶經行地 | 지금도 왜놈 배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
| 昨舌鳴梁指古碑 | 혀 깨물며 명량11)의 목은 비를 가리키네. |

황현, 『碧波津, 卽李忠武鏖兵處』

『箋註梅泉詩集』에는 碧波亭으로 되어있다. 이 시는 1896년 황현의 나이 42세 때 지은 작품이다. 이 해에 그는 해주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다가 古群山島로 세 번째 유배되었고 그 뒤 特旨로 2개월 만에 풀려나

9) 『箋註梅泉詩集』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연나라 소왕의 아경이 되어서 제나라의 일흔 개의 성을 함락시켰으나 제나라 전단이 연나라 혜왕에게 반간계를 써서 악의가 조나라로 달아났다〔爲燕昭王亞卿, 下齊七十餘城, 齊田單, 反間於燕惠王, 樂毅奔趙.〕”

10) 『箋註梅泉詩集』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곽자의가 분양왕이 된 것을 이른다〔謂郭子儀, 爲汾陽王.〕”

11) 『箋註梅泉詩集』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이충무공 전첩지〔李忠武公戰捷地也〕”

기도 하였다. 碧波津은 본래 국방상 중요 지역의 하나였던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임진왜란·정유재란 때에는 水軍營을 두었으며 李舜臣의 戰捷碑가 있다. 또한 순천에서 시작된 烽燧가 지나는 길목이자 海南縣 三岐院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벽파진 해전(1597년 음력 9월 7일, 양력 10월 16일)은 어란포 해전에 뒤이어 벽파진에서 왜군의 소규모 함대를 격파한 해전이다.

樂毅와 郭子儀라는 참소를 입은 두 인물을 제시했다. 악의는 田單의 이간질로 조나라로 달아나 觀津에 봉해졌다가 혜왕이 그에게 사죄하여 연·조 두 나라의 客卿이 되었고, 곽자의는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中原의 반란군을 토벌하였다. 그 뒤 宦官 魚朝恩 등의 배척으로 한때 실각하였다가 다시 기용되어 위구르를 懷柔하고 토번을 무찔러 당나라를 구하였다. 그 후 汾陽王에 봉해져서 당나라 최대의 공신으로서 영광을 누렸다. 거짓 참소에 희생이 되었다가 復權이 된 두 인물을 통해서 역사나 하늘이 忠義를 저버리지 않음을 말함으로써 이순신이 모함에서 풀려나와 명량대첩에 임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5-6구에서는 충무공의 뛰어난 戰功을 극찬하면서 지금의 武臣들은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영웅이 나타나 왜구의 침략을 일거에 소탕해 줄 것이라는 바람에 다름 아니다. 武臣에 대한 언급은 外勢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7-8구에서 古碑는 鳴梁大捷碑를 가리킨다. 1597년 9월 정유재란 때 李舜臣 장군이 명량에서 倭船을 격파하여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공을 기념하여, 1688년에 건립되었다. 1597년 9월 李舜臣이 우수영의 건너편에 있는 진도 碧波亭 아래에 진을 치고, 우수영 ~진도의 해협을 흐르는 급류를 이용하여 왜군 船團을 격파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예전에 왜구를 쳐부수던 곳에 왜놈의 배가 다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또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시인 자신의 무력감을 담고 있다. 혀를

깨물며 명랑대첩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일본에게 다시 설욕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다른 표현이다. 이처럼 예전과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여 영웅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이 암울한 민족 현실을 일시에 뒤바꾸어 줄 영웅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답답함이 표출된 시를 살펴보자.

遊人懷古強逍遙 나그네 옛 생각에 억지로 서성이니
 欲問前塵板渡橋 판도교 옛 자취를 물어보고 싶구나.
 임진란 때 왜군이 충무공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가 이 다리에 구멍을 뚫고 도망했다[壬辰, 倭爲忠武所困, 穴此橋而逃]
 鵬翼搏風方徙海 봉새 날개 바람 움켜 바다를 옮겨가고
 鯨兒撼岳急歎潮 고래는 산 흔들듯이 조수를 급히 부네.
 樓台休道那時盛 누대에선 그때의 성대함 말을 마소
 氛祲堪吁幾日消 요망한 기운 언제나 스러질까 탄식하네.
 龜船神功誰復識 거북선의 신묘한 공 뉘 다시 알겠는가
 街童謔說受降宵 아이들도 항복 받던 그날 밤을 말하누나.
 [忠武嘗造龜艦, 與倭戰, 必奏捷故云]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적과 싸워 반드시 언제나 이겼기에 하는 말이다.]
 김창숙, 「受降樓次板上韻」

김창숙¹²⁾은 이순신 관련 한시를 남긴 작가 중 가장 많은 12수를 남겼다. 그는 이순신 관련 사적을 두루 답사하고 시로 남겼는데 그 장소는 統營轅門, 洗兵館, 忠烈祠, 江漢樓, 挽河亭, 受降樓, 閑山島, 鑿梁橋 등이고 세병관, 총령사, 수항루 등에 대해서는 두 편 이상을 남겼다. 김창숙은 國權喪失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세대로 다른 시인보다 비분강개한 어조가 강하다. 外勢

12) 心山 金昌淑(1879~1962)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시업, 심산의 교우관계를 통해 본 민족운동의 방향, 『대동문화연구』 19집, 대동문화연구원, 1985; 「근대전환기 한문학의 세계인식과 "민족적 자아"-동산 유인식과 심산 김창숙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38집, 대동문화연구원, 2001.

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때보다도 憤氣가 시 전편으로 드러난다.

受降樓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은 곳이다. 봉새와 고래는 모두 일제의 침략을 상징한다. 5-6구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탄식과 義奮이 드러난다. 7-8구는 아이들도 연전연승하던 이순신의 공을 아직도 말한다고 하여 國權 回復의 의지를 희망적으로 개진하였다. 적들에게 항복을 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 적들을 항복시켰던 장소에 온 복잡한 심회가 엿보인다.

複閣層欄巷北東 골목의 북동쪽에 높은 건물 솟았으니
 胡兒鬚子各殊風 되놈과 왜놈이 풍속 각각 달랐네.
 受降古事凭誰問 항복 받던 그 옛 일을 누구에게 물어거나
 有淚洟瀾不語中 말 없는 가운데 눈물만 비 오듯 해.
 김창숙, 「過受降樓古址」
 百戰城池草樹荒 백전의 성과 연못 풀나무 황량한데
 龜船淪沒電線長 거북선은 가라앉고 전기줄만 길구나.
 天涯故老偏多感 하늘 끝 고로(故老)들은 감개도 하 많아서
 曉向江頭掃影堂 새벽녘 강가 향해 영당을 빗질하네.
 윤종균, 「題忠武公影堂」

김창숙과 윤종균¹³⁾의 시에서 매우 유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데, 이순신과 관련된 장소가 매우 쇠락하고 퇴영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국적인 집들이 즐비한 골목이나 왜놈과 되놈 아이가 활개 치는 모습에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물속에 이미 가라앉은 거북선의 모습과 전기줄이 가로놓인 풍경에서는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13) 그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병기, 尹鍾均에 대하여, 『국어문학』 25집, 국어문학회; 황수정, 酉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등이 있다. 최근에는 그의 문집이 진인호, 허근에 의해서 『譯註 酉堂時集』이란 이름으로 순천문화원에서 2003년에 간행된 바 있다.

將軍祠下竹林間 대숲 사이 자리 잡은 장군 사당 아래서
 底事書生痛哭還 서생이 어인 일로 통곡하고 돌아오나.
 誓海盟山何處是 바다 산에 맹세된 곳 그 어느 곳이더나
 [李忠武詩, 有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之句] [이충무공 시에 “바다에 맹세
 하니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맹세하니 풀과 나무도 안다”는 글귀가
 있었다.]

東鯨日噴接天瀾 동쪽 고래 날마다 하늘까지 물을 뿜네.

김창숙, 「10월 10일 밤 꿈에 김진우¹⁴⁾ 군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바
 다 위 어떤 장소인 대숲 속에 이르렀다. 이 충무공의 사당에 배알하여
 술잔을 부어 놓고 통곡하며 한 편 시를 읊었다. 꿈에서 깨어나 기록한
 다.

十月十日夜夢與金君振宇, 相携至海上一處竹林中. 謁李忠武祠, 酌酒痛哭,
 咏一絕詩. 覺而記之

이 시는 김창숙의 작품이다. 극도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그는 統營轅
 門〔統營罷爲 鎮南郡又置兵站所〕에서는 “...장군 이미 가신 곳 부질없이 깃
 발만 남고, 소인배 새로 교만하니 누가 오랑캐 막으랴... [元戎已去空留纛
 小醜新驕孰防秋]”라고 했고, 忠烈祠〔祠享 李忠武 舜臣〕에서는 “...황량한
 모래벌판에 오랑캐 뼈 분명하니 지금에도 크고 큰 열사의 마음이어! 긴 뱀
 이〔왜국〕 잠식함을 탄식하지만, 황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눈물로 그
 옷깃 적시리. [荒沙的歷蠻兒骨 異世輪困烈士心 嘆息長蛇方荐食 九原難作戾
 盈襟]”라 하여 그의 애끓는 감정을 표현한 바 있다.

이순신의 「陣中吟」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순신의 부재를 재확인한
 다. 동쪽의 고래〔東鯨〕가 날마다 하늘까지 물을 뿜는다는 것〔日噴接天瀾〕

은 일제의 왕성한 세력을 의미한다. 구국의 영웅이 없는 암울한 현실과 날
 로 강성해지는 일제에 대한 분노가 점철되어 있다.

지금까지 영웅의 부재와 암울한 민족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에
 실려 있는 시들은 悲憤慷慨한 어조를 띠고 있다. 일제에 대해 느끼는 분노
 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욱 고개를 든
 다. 이 시기 이순신의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와 관련된 장소를
 읊으며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은 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지금의 암울
 한 민족 현실에 강건하게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김창숙의 「江漢樓次板上韻」에서 “어떻게 하면 저 고래 무찔러서 바다 잔잔
 케 하랴. 공연히 칼을 잡고 슬픈 노래 보내노라. 노랑 싸움에서 한 번 장군의
 한 두었지만, 강한에는 오늘도 호기가 많이 있네. [安得殲鯨海不波 謾憑龍
 劍送悲歌 露梁一着元戎恨 江漢秭今灑氣多]”라고 했듯이 결기가 서려있는 시
 를 통해서 희망을 엿보려는 시도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3.3 반 외세의 대망적 영웅 제시

이 시기에는 다양한 傳記들이 출현한다. 을지문덕, 강감찬, 연개소문, 이
 순신 등을 다룬 역사 전기소설이 그것이다. 救國의 영웅은 무엇보다 武人들
 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불온한 현실을 일시에 전복할 수 있는 인물
 로는 武人이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누구보다 이순신이 있었
 다. 충무공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을 일시에 무력화 시켰다. 國權을 일본에
 게 상실하는 즈음에 이순신 같은 영웅이 다시 부활하여 설욕해주기를 바라
 는 심정이 담긴 시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天狗蝓月滄溟竭 천구(天狗)가 달을 삼켜 넓은 바다 말라붙고
 罡風萬里扶桑折 된바람 만 리 불어 부상을 꺾었다네.

14) 金振宇(1882~1989): 본관은 강릉. 호는 一州·金剛山人. 1918년 金圭鏞이 개설
 한 서화연구회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부를 하였다. 사군자 중에서도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으며 글씨도 행·초서에 능했고 서화 감식에도 밝았다. 8·15광복 후 한때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하나 확실치는 않다. 작품에 1918년에 그린 묵죽도와 간
 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虛心豐德, 竹石圖 등이 있다.

主屹關關已倒地 主屹山(主屹山) 큰 관문은 이미 다 짓밟혔고
舟師十萬仍豕突 수군 십만 명이 저돌적으로 들이쳤네.
元家老將一肉袋 원씨 집안 늙은 장수 무능한 사람여서
孤甲棲島蚍蜉絕 혼자 갑옷 입고 섬 있을 제 작은 도움도 다 끊겼었네.
封疆重寄無爾我 국토 수호 중대한 책임 너와 내 따질 수 없고
葦杭詎可秦視越 도와짐에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으랴!
左水營南門大開 전라도 좌수영 남문이 활짝 열리자
滯淵伐鼓龜船出 동동 북을 울리면서 거북선 출정하네.
似龜非龜船非船 거북도 아니었고 배라고도 못할진대
板屋穹然礮鯨沫 판옥선 우뚝하게 고래 물결 밀고 가네.
四足環轉爲車輪 네 다리 빙글빙글 수레의 바퀴 같고
兩肋鱗張作檣穴 양 옆구리 비늘이 펼친 듯 檣 구멍 만들었네.
二十四棹波底舞 스물네 개 노는 물결 속에서 춤을 추고
棹夫坐臥陽侯窟 노 젓는 수병(水兵)들 파도 속에서 앓을락 누울락 노를 짓네.

鼻射黑烟抹丹 코로 검은 연기 뿜고 눈에는 불 컸는데
伸如遊龍縮如鼈 펼치면 용이 놀듯 움치면 자라가 오므리듯.
鬚子嗚嗚哭且愁 왜놈 군사 허우적대며 통곡하다 시름하니
露梁開山漲紅血 노량 한산 앞바다에 붉은 핏물 넘실대네.
赤壁少年逢時幸 적벽의 소년 주유 때를 잘 만났던 것이고
采石書生誇膽決 채석의 서생 우윤문(虞允文)은 용단을 자랑했네.
孰能橫海經百戰 누가 능히 바다 가르며 온갖 전투 치룰 수 있나?
截鯨斬鰐鉞不缺 고래, 악어 베어대도 칼날은 온전했네.
二百年來地毯綻 충무공 떠나신지 2백 년에 지구가 트이더니
輪舶東行炤輻日 증기선이 동쪽 오자 불꽃이 해 가렸네.
熨平震土虎入羊 평화로운 우리 땅에 호랑이가 뛰어들듯
火器掀天殺機發 화기가 하늘 찌르고 살육이 시작됐네.
九原可作忠武公 저승 계신 충무공을 모셔올 수 있다면
囊底恢奇應有術 지혜(智囊)가 뛰어나서 응당 계책 있을 거네.
創智制勝如龜船 거북선 만든 지혜로 적과 싸우시면
倭人乞死洋人滅 왜놈들 목숨 빌고 양놈들 섬멸되리.

황현, 「李忠武公龜船歌」¹⁵⁾

이 시는 1884년 그의 나이 30세 때 쓴 작품으로 32행이나 되는 長詩이다. 황현은 임진란 때 민족의식의 승리를 확인하여 「龜船歌」, 「蠹石樓」, 「義巖祠」 등의 우국시를 지었고, 충신 의사를 추모하여 洪萬植, 趙秉世 등의 전기를 시로 지었다. 또한 梅福, 管寧 등 중국의 지사를 재조명¹⁶⁾하기도 했다. 絶命詩를 남기고 殉國한 구한말 대표적인 志士의 이순신 관련 한시를 살펴보겠다.

1-8구는 임진란 때의 정세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天狗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佛法을 방해하는 신통력이 있다는 괴물이고, 罡風은 원래는 도쿄에서 높은 곳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뒤에 強風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天狗와 罡風은 모두 왜적의 침략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문경세재가 함락된 사실과 원균의 무능함을 제시했다. 원균을 肉袋, 즉 고기 자루에, 그의 도움을 蚍蜉, 즉 왕개미에 비유하였다. 원균을 매우 무능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8구의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으랴(詎可秦視越)”는 직역을 하면 “어찌 진나라가 월나라를 보듯 할 수 있으랴”라는 의미이다. 진나라는 서쪽에 월나라는 동쪽에 각각 있어서 매우 거리가 먼 나라였다. 이 시구는 전라도 좌수영에 있던 이순신이 경상우수영에 있던 원균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9-20구는 거북선의 모습과 활약을 이야기했다. 거북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시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⁷⁾ 거북선이 장쾌하게 진격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북선의 전모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마무리에 거

15) 『매천전집』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검열에 의하여 전체시를 삭제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16) 심경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화학파의 지적 고뇌와 문학, 『어문논집』 41집, 민족어문학회, 2000.

17) 거북선이 表題로 드러난 작품은 문집총간을 검색해 보아도 단 3편밖에 나오지 않는다. 조현명(趙顯命, 1690~1752), 「龜船 : 강위(姜瑋, 1820~1884), 「龜船 : 황현(黃玹, 1855~1910), 「李忠武公龜船歌」.

북선이 활약해서 왜놈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喁喁라는 단어를 써서 왜놈들이 물고기처럼 숨을 쉬려고 물 밖에 입으로 빼금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노량과 한산 앞바다에 붉은 핏물 넘실댄다는 표현에서는 상쾌함마저 느낄 수 있다.

21-24구는 충무공을 중국 인물에 빗대어 治積을 부각시켰다. 赤壁少年은 적벽대전에서 火攻法으로 曹操를 물리친 周瑜를 가리키고, 采石書生은 금나라의 군사를 맞아 采石에서 격파한 虞允文을 가리킨다.

25-32구는 다시 시점이 현재로 돌아온다. 암울한 조선의 현실과 임진란의 위기를 병치시킨다. 외세의 침탈을 화륜선(輪舶)과 호랑이(虎)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러한 민족의 위기에 이순신 같은 영웅이 다시 살아온다면 참담한 현실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왜놈과 양놈들을 모두 섬멸할 대상으로 표현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이 시는 『매천전집』에 일제의 검열에 의해 전체를 삭제하도록 표시하였다. 일제의 서술이 퍼런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지은 황현이 얼마나 대단한 義氣를 가졌던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往者萬曆倭寇東 韓臣有李忠武公 奇鞞妙畧似神鬼 殺倭滿海波濤紅 當時倭兒患瘡疾 背書其名勝藥功 三百年後漢江竭 修羅蝕月凶腸充 使我奔伏淮之側 白頭欲舉羞蒼穹 奈何今日中州彥 籛籛之病頗相同

지난날 만력 연간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우리나라 신하에는 이충무공 있었다네. 기묘한 비결일랑 귀신과도 같아서 죽인 왜놈 가득 찬 바다 파도도 붉었다네. 당시에 왜놈 꼬마 학질을 앓을 적에 등쪽에 (이순신) 이름 쓰면 약보다 훨씬 낫네. 그로부터 삼백 년 뒤 한강 물 마르고 이수라 달을 먹듯 흉한 놈 창자를 채우네. 나로 하여금 회수 가에 달려가 엎드리게 하니 흰머리 들러 해도 하늘이 부끄럽네. 어찌해서 오늘날 중국의 선비들은 앓은병이 병 자못 서로 같은가

慨然共思曹壯士 沫血擊賊衛南通 奇功垂成身徑殞 憤氣化爲青色虹 叱工築亭安厥像 橫刀立馬生長風 請君且攬新亭涕 與我賒酒向新豐 一盃酌我李兵仙 一盃酌君曹鬼雄 巫陽與招魂氣返 旗光劍色摩虛空 雷鼓鼓動兩國氣 人間何代無勇忠

몽글하게 조장사 함께 생각하니 피 흘리고 적을 쳐서 남통을 지켰다네. 기이한 공 이루시고 몸이 급히 떠나시니 분한 기운은 푸른 무지개 되었다네. 기술자 독려해서 정자 짓고 그 상을 모시니 칼 빗겨 차고 말에 올라 긴 바람 불듯하네. 그대에게 청하노니 새 정자 보고 눈물 흘리고 나와 함께 술 사다가 신평을 향하리라. 한 잔은 우리 충무공께 올리고 한 잔은 그대의 조장사께 올리네. 무당이 넋을 불러 기운이 돌아오니 빛나는 깃발과 칼 허공을 찌를 것 같네. 우레 소리 같은 북이 두 나라 기세 울리나니 세상에 어느 맨들 충용(忠勇)한 이 없었으랴. 김택영, 『曹公亭歌 爲費範九作』

이 시는 1921년에 지어진 작품으로 당시 김택영의 나이 72세였다. 매천과 창강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매천이 죽었을 때 「聞黃梅泉殉信作」을 지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 앞서 매천의 작품과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두 시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창강은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嗚呼賦」라는 賦를 썼다. 이견창이 憶于霖에서 ‘김택영의 賦는 長安의 종이 값을 올리었고, 雄渾한 문장은 司馬相如보다 더하다’라 했듯이 대단히 비감하여 愛國詩 중에 絶唱이라 할 만 하다. 이 작품에서도 “살수에서 수의 군사 처부수었고, 거북선으로 왜놈들 닢 빼앗았네. [摧西鋒於薩水兮, 褫東魄於龜船]”라고 해서 이순신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에서 曹公은 曹頂(1514~1557)이다. 嘉靖 때 삼천 명의 倭寇가 通州城을 공격해 오자 曹頂은 수병 500명을 거느리고 20여 일 동안 싸워서 통주를 지켜냈다.18) 그 후 재차 왜구가 통주에 쳐들어 왔을 때 싸우다가 戰死하니 당시 나이 44세였다. 이 시는 그의 亭子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費範九는 費師洪이다. 그의 구체적인 행적은 확인할 수 없다.

1-6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을 떠올리고 있다. 기묘한 계책으로 왜적을 제압했던 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왜놈의 아이들도 학질을 떨치기 위해 등에 이순신의 이름을 썼다는 구절에서 이순신이 얼마나 왜적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가 드러난다.

7-12구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국권의 상실을 蝕月에 일본을 凶陽에 각각 비유하였다. 淮水에 엎드렸다는 것은 창강이 중국 유민으로 있었던 사실을 말한다. 일제에게 신음하는 조선과 중국의 처지를 앓은병이 병(籛條之病)을 함께 앓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매우 이채롭다. 13-20구는 왜구에 가서 南通을 구해낸 救國의 영웅 曹頂에 대한 治積을 언급하고, 그의 亭子에 선 창강 자신의 감회를 풀어냈다. 他國에서 보게 된 구국의 영웅 앞에서 故國의 영웅이 자연스레 겹쳐지고 있다.

21-26구는 曹頂과 이순신을 함께 招魂하였다. 부족한 군사를 이끌고 나가 通州를 지켜냈던 曹頂과 潰滅 상태의 水軍을 정비해 싸운 이순신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韓中 양국의 백성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대항하자는 傳言이 깔려져 있는 셈이다. 그러한 백성들을 독려하고 지휘해 줄 불세출의 영웅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이 시에 실려 있다.

김택영은 1920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청하는 「擬陳情書」를 썼고, 1921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물들과 교유한 내용을 담은 시를 썼다.¹⁹⁾ 그는 당시 유민의 처지였으며, 이미 고회를 넘긴 나이였다. 그러나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다시 나타나 조선의 현실을 구원해 주리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반 외세의 대망적 영웅 제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영웅의 출현을 고대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은 더 깊어진다. 기대나 희망은 사라지고 좌절과 체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럴 때 역사 속에서 실재했던 英雄은 그 자체로 위안이며 희망을 가져다준다. 그러한 영웅이 다시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민중들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은 당시에 가장 매력적인 아이콘임에 틀림없다.

4. 결론

권력이나 정권을 위해 영웅을 만들어내던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한 불온한 시대가 가고 이제는 꿈꾸어야 할 영웅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웅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꾸어야 할 영웅 하나 없는 세상이 더 행복한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서세동점기는 外勢가 蠢動하던 시기였다. 외세의 威力이 더하면 더할수록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지식인의 무력감도 함께 늘어갔다. 이러한 무력감은 외세에 대한 분노로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들은 이순신을 꿈꾸었고, 이순신을 노래했다. 꿈처럼 이순신이 되살아나 거북선을 몰고 와 외세의 더러운 妖氣를 소탕해 주기를 바랐다. 특히 이 시기에 이순신 관련 한시가 집중해서 창작된 것은 시인들의 하나의 경향이랄 할 만하다.

우선, 충무공을 회고하고 추상한 시들을 살펴보았다. 이순신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서 이순신을 떠올리고 노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들은 이

18) 『淸光緒通州志』·「人物志·忠節傳」：嘉靖三十二年(公元1553年) 曹頂應募御倭。翌年，有三千倭寇進犯通州城，曹頂率領五百水兵與倭激戰二十餘日，冲鋒陷陣斬倭首幾百餘級，身被數十創。

19) 황재문, 「김택영 시에 나타난 유민의식(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149쪽.

순신 관련 한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특성을 띤다. 이순신을 생각하는 동시에 암담한 조선의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부각된다. 이 시들은 지금과 과거를 대비시키면서 지금의 상황을 그려내는데 매우 애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영웅을 통해 조선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표현된다.

다음으로 영웅의 부재와 암울한 민족 현실을 다룬 시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실려 있는 시들은 悲憤慷慨한 어조를 띠고 있다. 일제에 대해 느끼는 분노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더욱 고개를 든다. 이 시기 이순신의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와 관련된 장소를 읊으며 그를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은 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지금의 암울한 민족 현실과 강건하게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반 외세의 대망적 영웅 제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영웅의 출현을 고대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은 더 깊어지고 기대나 희망은 사라지면서 좌절과 체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럴 때 역사 속에서 실재했던 英雄은 그 자체로 위안이며 희망을 가져다준다. 그러한 영웅이 다시 출현할 것이라 믿음 속에서 민중들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은 당시에 가장 매력적인 아이콘임에 틀림없다.

이상으로 서세동점기 한시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의 형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에 그는 왜적을 막아낸 救國의 영웅일 뿐 아니라, 外勢를 막아줄 守護神이었다. 그를 떠올리면서 민중들은 결집했고, 지식인은 무력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순신과 거북선은 가장 매력적인 존재다. 그는 먼지 낀 古書에 누워있지 않고 언제까지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친근한 偉人의 모습으로 우리를 항상 꿈꾸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시업, 「심산의 교우관계를 통해 본 민족운동의 방향」, 『대동문화연구』 19집, 대동문화연구원, 1985.
- 김정환, 『매천시파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김창숙, 「근대전환기 한문학의 세계인식과 “민족적 자아”」, 『대동문화연구』 38집,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심경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화학파의 지적 고뇌와 문학」, 『어문논집』 41집, 민족어문학회, 2000.
- 장경남,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 진인호, 허 근 역해, 『순천 옛시』, 순천문화원, 2004.
- 최영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 『이순신 연구』 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2003.
- 황수정, 「西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황재문, 「김택영 시에 나타난 유민의식(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149쪽.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Studies on the Images of Yi Sun-shin
portrayed in 19th century literature
-focused to Chinese poems-**

Park, Dong-wook

The Great Admiral Yi Sun-shin has been portrayed in various fields of art.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s, especially Chinese poems, and limited the periodical background as 19th century, when foreign countries had overpowered the n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lists of Admiral Yi Sun-shin relevant Chinese poems, collected from the anthologies of Maecheon Poetic Circles. This is the first scholarly attempt to excerpt, collect and enumerate Admiral Yi relevant Chinese poems in quite amount of volume.

It is highly remarkable and noticeable phenomena, that there were many Chinese poems created with the theme of Admiral Yi, in the era of 19th century when foreign powers had shown their invasive ambitions. This is the time when foreign powers overcame and maneuvering Korean politics and the intellectuals expressed more and more feeling of helplessness since they could not do anything to overcome the reality. Sometimes, they showed angers or expressed self-destructive feelings. They wanted

Admiral Yi to revive and sweep away the foreign power, which were sometimes compared to filthy devils, with the help of Geobukseon that Admiral Yi created.

There can be three different types of Admiral Yi relevant Chinese poems in this specific era. First is recalling and reflecting on Admiral Yi, and this type is the most general type. The writers visit Admiral Yi relevant places, the brought Admiral Yi relevant images to mind. Second is writing about the absence of hero and the dark and gloomy days of the nation. These poems have certain hues of deplore. Thirdly, some poems proposed and anticipated for great heroes who could win over foreign powers. Historic heroes are consolations and aspirations for people at that time. The general public could hope for the better future with the firm belief to see such heroes once again.

At that time, Admiral Yi was not only a patriotic hero who saved the once endangered nation, but also the tutelary deity who could have saved Korea from foreign powers. The people united thinking of him and could salvage themselves from the helplessness and self-destructive feelings by reflecting on Admiral Yi. Even till now, Admiral Yi and Geobukseon is still appealing to general public, maybe the most attractive historic figure of Korea. He will always inspire us as a courageous hero who will be with us forever.

Key words: Yi Sun-Shin, Chungmukong, Hwanghyeong(黃玹)
(1855~1910), 19th century, Increasing West Decreasing East,

Foreign powers(外勢), Geobukseon, "cherish the memory of the old friends" poetry